

韓末 13道倡義大將 李麟榮의 生涯와 活動

오 영 섭

- | | |
|---------------|-------------------------|
| 1. 머리말 | 1) 관동창의군의 결성과 활동 |
| 2. 가문 및 학문 배경 | 2) 13도창의대진소의 편제와 서울진공작전 |
| 3. 을미의병운동 | 3) 창 의 목적 및 순국 과정 |
| 4. 정미의병운동 | 5. 맺음말 |

1. 머리말

1894년 6월 일본군의 경복궁 무단점령에서부터 1910년 8월 대한제국의 패망에 이르기까지 일제의 대한침략은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며 점차 고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동학사상·개화사상·척사사상·계몽사상에 기반한 한국근대의 여러 민족운동 세력들은 국가와 민족과 영토와 국왕을 수호하기 위해 각기 중앙과 지방에서 궤기하여 일제에 대항하였다. 다채롭게 벌어진 한민족의 항일운동 가운데 일본군과 친일세력을 몰아내고자 무장 봉기한 의병전쟁은 투쟁노선 면에서 가장 강렬한 반일운동이었다.

항일의병운동은 교육과 식산의 진흥을 통한 국권회복을 외친 애국계몽운동과 달리 반제투쟁의 선명성을 내외에 과시하였다. 이 운동은

국권 상실 후 러시아·중국 등지를 무대로 전개된 독립운동에 인적 자원을 공급했을 뿐 아니라 한민족이 온갖 역경을 견뎌가며 장기간 치열하고도 끈질기게 독립운동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정신적 동력을 제공했다. 그러므로 한말 의병운동은 한국민족운동사의 原型이요 한국독립운동사의 前史라고 말할 수 있다.¹⁾

한말 의병운동은 거족적·전국적 차원의 항일민족운동이다. 이를테면 이곳 저곳에서 우후죽순처럼 봉기한 중앙관료·近侍別入侍·전직관료·재야유림·향리층·해산군인·지방군인·포군(포수)·농민·상인·보부상·동학군·활빈당·승군 등등 실로 다양한 집단들이 일본의 대한침략과 친일파의 매국행위를 징치하고자 대규모 연합의진을 결성하여 일제군대와 친일정부에 대항했다. 이들은 지위·빈부·신분·사상·학통·지역의 차이를 극복하고 친일파와 일본군을 물리치고 국가와 국왕을 지키려는 충군애국론에 공감하여 거의했다. 이들 재야의 의병세력들은 거의를 전후한 시기에 밀사와 밀지를 통하여 고종황제 및 그 주변세력들과 연대관계를 맺은 후 고종세력의 대리인이거나 향촌의 명망가를 의병장에 추대하여 지도자로 삼고 장기간 치열한 항일전을 펼쳤다. 대략 1915년 7월 蔡應彦이 체포될 때까지 지속된 이들은 항일활동은 국가 멸망 전후기에 한국인들이 전개한 무장구국운동의 대미를 장식했다.

반일의병운동을 화려하게 수놓은 애국의병장들은 양반과 상민을 포함하여 수 백명에 달한다. 그러나 특정 지역을 무대로 활약한 여러 의병세력들을 망라하여 전국적인 의병장의 직함을 지녔던 이는 경기도에서 활약한 13道信義大將 李麟榮과 러시아 연해주에서 활약한 13

1 金義煥, 『韓國近代史研究論集』, 成進文化社, 1972; 金義煥, 『義兵運動史』, 博英社, 1974; 金義煥, 『抗日義兵將列傳』, 正音社, 1975; 朴成壽, 『獨立運動史研究』, 創作과批評社, 1980;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編, 『義兵抗爭史』, 1984; 오길보, 『조선근대반일의병운동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조동걸, 『한말 의병전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윤병석, 『한말 의병장 열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1.

道義軍都總裁 柳麟錫 두 사람 뿐이다. 이중 ‘한말 의병의 총수’라는 별칭을 얻었을 정도로 의병운동에 평생을 바친 유인석에 대해서는 그의 사상과 활동 전반에 대해 이미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다.²⁾ 이에 반해 군대해산 후 수 천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강원영서 및 경기남부 일대에서 활발한 의병활동을 펼쳤고, 13도창의군이 서울진공전을 전개할 때에 총대장을 맡았을 뿐더러 피체 후 일제의 거듭된 회유와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경성감옥에서 장렬히 최후를 마친 이인영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³⁾

여기서는 현존하는 매우 소략한 그리고 산재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합하여 한말 의병운동을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이인영의 생애와 활동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려 한다. 나아가 이인영의 육성이 그대로 실린 「李麟榮問答調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종황제의 밀지 문제와 밀지를 매개한 중앙세력과 지방세력간의 연대관계를 본격적·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고찰함으로써 이인영의 항일의병운동에 나타난 근왕적 성격 내지 특성을 부각시켜 서술하겠다. 다만 여기서는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이인영의 전·후기 의병활동의 구체상과 이인영의진에 참여한 다양한 집단들의 면면과 활약상을 깊이 파헤치지 못했음을 미리 언급해 두고자 한다.

2. 가문 및 학문 배경

- 2 吳英燮 『華西學派의 思想과 民族運動』, 國學資料院, 1999, [參考文獻] 참조
- 3 이인영에 대한 본격적 연구로는 鄭達雄의 「韓末 義兵將 李麟榮 研究--十三道聯合義兵抗戰을 中心으로--」(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3)와 愼鏞廈의 「全國 ‘十三道倡義大陣所’의 聯合義兵運動」(『韓國近代民族運動史研究』, 一潮閣, 1988)이 있다. 이중 전자는 사료의 인용과 해석 면에서 상당한 오류가 있으며, 후자는 이인영의 활동보다는 13도연합군의 활동을 주로 다뤘을 뿐더러 이인영 의병이 대패한 三山전투와 麻田전투를 의병측이 대승한 것처럼 기술하였다. 이 외에 이인영에 대한 略傳은 『獨立有功者功勳錄』, 國家報勳處, 1986, 845-850쪽, 金三雄, 「서대문감옥에서 순국한 의병장」, 『서대문형무소 근현대사』, 나남출판, 2000, 58-64쪽.

이인영(1866.9-1909.9, 자는 公振, 호는 中南)은 경기도 驪州郡 북면 內龍里 橋項洞(일명 다리목)에서 경주이씨 菊堂公派의 李顯商과 김해 김씨의 아들 4형제(麟榮·殷榮·起榮·龜榮)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여주군 북면 일대에 거주하며 관직과 문헌을 전승한 양반가문이었다. 그의 11대조 李鵬壽(1509-1555)는 명종조에 국왕이 누차 부르는 데도 관직에 나가지 않아 松溪處士란 호를 하사 받았고 종신토록 은거하며 학문과 덕행을 닦았던 고명한 선비였다. 고조부 甫彦은 嘉善大夫·호조판서·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部都摠管을, 증조부 章郁은 가선대부·공조참판·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을, 조부 漢龍은 通德郎을 지냈다. 부친 顯商은 성품이 강개하고 공명·정직하여 당쟁을 좋아하지 않았고, 과거급제 후 기용을 기다릴 적에 親喪이 있자 즉각 귀향·분상하여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國事가 나날이 그르쳐지는 것을 보고 두 번 다시 과거를 보지 않고 은거하여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에 열중하였고, 그리고 매번 국사의 위급을 생각할 때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는 개결한 선비였다.⁴⁾ 이러한 가문 배경을 통하여 이인영은 부친의 지극한 효성과 처사의 자세를 자연스럽게 본받게 되었음은 물론 집안의 넉넉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장기간 경학을 깊이 공부했을 것이다.

이인영은 나면서부터 남다른 자질(異質)과 빼어난 총명함(穎悟)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뛰어난 재주를 바탕으로 이인영은 이른 나이부터 서울 선비 鄭東鉉(鄭蘭央, ?-1877)에게서 유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수학 시절에는 선생의 가르침과 독려를 번거롭게 하지 않았을 정도로 오로지 학문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하여 약관의 나이에 벌써 文辭가 숙성하고 孔孟書의 깊은 뜻을 깨우친 경지에 도달하여 원근 학자들의 존경을 받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학문을 바탕으로

4 『慶州李氏菊堂公派基幹世譜』, 1978, 287-288쪽; 『慶州李氏大宗譜』 23, 菊堂公派編 乙之一, 1987, 49, 346-347쪽. 또 그의 10대조 黠은 判官을, 8대조 尙培는 參奉을, 7대조 端紋는 司僕寺正을, 6대조 國新은 贈司僕寺正을 지냈다.

복상 중에 국내의 시사문제를 다룬 「道基記言」이라는 책자를 집필하였다고 한다.⁵⁾ 또한 서울의 일본헌병대본부에서 문초받을 때 일본인 심문관이 그에게 “네가 관상·천문·방위와 같은 분야를 특기로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거나, “다른 방면에 어떤 장기가 있다고 들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인영은 이른바 정확한 주자학을 제외한 여타 학문 분야에도 상당한 식견과 조예를 지니고 있었다.⁶⁾ 나아가 그는 무반직을 거친 고조부·증조부의 영향으로 군사분야의 전략과 전술에 일정한 지식을 가졌을 것이며, 이러한 군사지식은 그가 관동창의대장과 13도창의대장으로서 군사활동을 전개하는데 유익한 자산이 되었을 것이다.

성품이 매우 호탕한 인물로 알려진 이인영은 상민들이 그의 집을 지나가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엄격한 면도 많았다고 한다.⁷⁾ 관직은 무임직인 大成殿 齋任을 지냈는데, 이것이 그가 평생 역임한 유일한 벼슬이었다.⁸⁾ 그리고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인영은 13도창의군의 서울진공작전 중에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 창의대장의 막중대임을 벗어던지고 귀향길에 올랐을 정도로 효성심이 지극한 인물이었다. 나아가 당장 입증할 수는 없지만, 그는 을미의병운동 시에 청국군을 응원군으로 소모하고 무기와 탄약을 구입하느라 많은 재산을 투자하여 빈곤해진 관계로 그는 한때 李康季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한다.⁹⁾ 하여튼 의병활동을 일시 중지하고 재기를 모색 중이던

5 「義兵總大將 李麟榮氏의 略史(續)」, 『大韓每日申報』, 1909년 7월 28일; 「第一回 李麟榮問答調書」, 『韓國獨立運動史』 1, 國史編纂委員會, 1965, 719, 736쪽; 『慶州李氏菊堂公派基幹世譜』, 287쪽; 宋相燾, 『騎鶴隨筆』, 「李麟榮」, 國史編纂委員會, 1971, 126쪽.

6 「第二回 李麟榮問答調書」, 736쪽.

7 鄭達雄, 「韓末 義兵將 李麟榮 研究」, 3쪽.

8 「十三道倡義大將李麟榮逮捕始末」, 『韓國獨立運動史』 1, 718쪽.

9 鄭達雄, 「韓末 義兵將 李麟榮 研究」, 4, 22, 25쪽. 이는 이인영이 1896년 3월경 제천의병에 합류한 후 자신이 소모한 청국군 7명의 급료와 생활비를 대느라

1908년 9월경에 이인영은 현금 1,500냥과 黃澗邑 金溪지역에 밭 2두락, 화전 3두락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피체 직전에 그는 가난을 겨우 면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지니고 있었던 셈이다.¹⁰⁾

3. 을미의병운동

일본군의 경복궁점령(‘甲午變亂’, 1894.6)으로 친일개화파·대원군 연립정권이 등장함으로써 고종과 민비가 유폐되고 갑오경장이 단행되었다. 이에 중앙의 고종세력과 지방의 재야유림은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고 君父를 욕보인 친일개화파와 일본군을 축출하기 위해 의병봉기를 모색했다. 갑오경장 직후부터 각기 중앙과 지방에서 동시에 추진된 그들의 거의노력은 대다수 조선인들이 규탄해 마지않은 을미사변(1895.8)과 단발령(1895.11)을 전후하여 역사의 전면에 분출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을미의병운동은 중앙의 동도서기세력과 지방의 위정척사세력간의 합작품이었다고 평할 수 있다.

단발령 후 고종세력과 연대한 양반유림들은 투철한 이념성보다는 다소간 생존권 확보를 우선시하는 일반 민중들의 소박한 항일열기를 적극 수렴하여 지방의 요해지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들 가운데 일정 지역을 무대로 장기간 활동한 柳麟錫·金河洛·李昭應·盧應圭·閔龍鎬 등의 창의활동이 두드러진 편이다. 이들 을미 연합의병장들은 사방에 살포한 격문을 통하여 한결같이 민비시해를 복수하고 단발령을 반대하고 친일개화파와 일본군을 몰아내고 갑오경장 이전의 사회

재산을 탕진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당시 의병에 가담한 포군들은 평상시의 別砲軍에 비해 적어도 3배 이상의 고액 급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오영섭, 「을미 제천의병의 참여세력 분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0, 40-43쪽.

10 「第二回 李麟榮問答調書」, 736쪽.

체제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다. 한마디로 이들은 위정척사론에 입각하여 강력한 반일·반개화 이념을 표방하였다.¹¹⁾

단발령 후 경기남부·강원영서·충청좌도 일대에서도 많은 유림들이 거의하였다. 이들은 갑오경장 직후부터 이미 일본군의 대한침략과 친일개화파의 매국행위에 분개하여 거의를 모색하고 있었다. 강고한 항일의식과 창의의지로 무장한 이들 유림들은 을미사변 전후에 향리로 낙향하여 일본세력의 타도와 민비시해의 복수를 다짐하며 거의를 모색 중이던 고종세력들과 연대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재야세력들은 을미사변 후부터 단발령을 전후한 시기에 국왕 고종과 그 측근 인사들이 파견한 밀사(근시·별입시)들로부터 창의를 권하는 고종 명의를 밀지를 수령한 다음에 거의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아관 파천 직후 이범진·이완용·이윤용 등 정동파 각료들이 ‘선효유 후토벌’을 내세워 의병해산 훈령을 내리자 평소 그들과 친분이 두터웠던 『大韓季年史』의 저자 鄭喬는 “이보다 앞서 각처 의병은 모두 밀칙을 받고 일어났다”고 설파했던 것이다.¹²⁾

을미 연합의병장들이 밀지를 중시한 것은, 국왕의 신물인 밀지가 국왕의 소모령을 받지않고 일어나 군사활동 중인 의병장들에게 정치적·군사적·사상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해주고, 유교적 충군애국론을 신봉하는 재야신민들의 광범위한 무조건적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그리고 1-20명 정도의 소규모 의병부대를 끌어모아 대규모 연합의진을 형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¹³⁾ 그리하여 일제침략을 규탄하는 충군애국형·근왕

11 吳瑛燮, 『華西學派의 思想과 民族運動』, 제4장 제1절.

12 鄭喬, 『大韓季年史』上, 國史編纂委員會, 1957, 139면. 先是 各處義兵 皆受密勅 而起 內閣則遣兵擊之 故至是下此詔. 고종 및 그 측근들과 을미 연합의병장들과의 연대관계에 대해서는, 吳瑛燮, 「乙未 義兵運動의 政治·社會的 背景」, 『國史館論叢』 65, 1995, 제3장 참조.

13 한말 의병운동과 밀지와와의 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吳瑛燮, 「韓末 義兵運動의 勤王의 性格-密旨를 中心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5, 1997.

주의형 및 비분강개형의 재야유림들은 국왕 고종의 주변인사들과 사전에 연대하여 거의하거나, 아니면 고종 및 그 주변세력으로부터 고종 명의를 밀지를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분연히 떨쳐 일어났다. 나아가 그러한 인사들 가운데는 밀지를 최초로 전달받은 의병장들이 작성하여 각지에 발송한 복사본 밀지와 倡義檄文에 영향받아 뒤늦게 거의 하는 경우도 많았다.¹⁴⁾

본고의 주제 인물인 이인영과 뒤에서 자주 언급될 허위와 이강년은 을사조약 이후 근왕세력에게서 직접 밀지를 받은 다음에 거의하여 두드러진 전과를 올린 유명한 연합의병장들이다. 그런데 한가지 주목할 점은 단발령 전후에 직접 밀지를 받은 유인석·김하락·이소응 등 경기·강원·충청도 지역의 연합의병장들이 각지에 전포한 복사본 밀지와 창의격문에 호응하여 뒤늦게 일어나 활발한 활동을 벌인 인물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사실이다.¹⁵⁾ 이인영의 을미의병운동은 바로 이러한 사전 전개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인영은 약 한 달간 원주지역을 무대로 반개화·항일 의병활동을 펼쳤다.¹⁶⁾ 1896년 2월 7일 영월에서 의병장에 오른 유인석이 각지에 창의격문을 보내 봉기를 촉구할 때쯤에 이인영은 여주에서 거의하였

14 복사본 밀지와 창의격문을 받고 뒤늦게 일어난 의진, 특히 경상·전라도 지역의 을미의병들을 기왕에는 ‘기회주의적 의병’이라고 불렀으나 이는 밀지의 기능과 유림들의 근왕적 성향을 간과한 단순한 해석이다. 을미 연합의병장들의 밀지수령 사실에 대해서는, 吳瑛燮, 「乙未 義兵運動의 政治·社會的 背景」, 제3장 제2절. 또 밀지가 여러 차례 베껴져 널리 전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具玩會, 「韓末의 ‘湖左義軍(堤川義兵)’과 密旨」, 『內堤文化』 11, 1999, 125-126쪽.

15 단발령 후 許藹의 밀지수령 사실에 대해서는, 姜周鎭, 「허위의 정치적 경륜」, 『나라사랑』 27, 1977, 39쪽. “乙未奉太上皇帝密詔 與善山郡林隱許藹旺山公 同郡坪城姜成允金德三朴柱夏 尙州愚川柳萬植二岡公柳梁山令柳叔亨公 各坦家奴兵 幾百名率來爲約矣(乙未倡義事實).”

16 이하 이인영의 원주지역에서의 의병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영섭, 「원주지역의 을미의병」, 『강원지역문화연구』 창간호, 2001, 97-108쪽.

다.¹⁷⁾ 그러나 여주에는 이미 고종의 이종사촌이자 중앙고관인 沈相薰(1854-1907)의 일족 沈相禧가 단발령 바로 다음날 한강을 건너온 김하락에 의해 ‘驪州大將’에 임명되어 500여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활동하고 있었다.¹⁸⁾ 따라서 이인영은 심상회를 피하여 원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활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원주에서 이인영의병은 제천의병의 소모사 李範稷부대와 김하락의 막하인 광주의 金泰元부대의 측면과 배후를 방비하는 활동을 펼쳤을 것이다. 아울러 이인영의병은 심상회의병과 마찬가지로 일본군의 전선을 끊고 전신주를 절단하는 등의 반일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때 원주에서의 이인영의의병활동은 “크게 얻고 잃은 것도 없다”(無大得失)라고 표현된 것처럼 두드러진 성과를 올린 것은 아니었다.¹⁹⁾

1896년 3월 상순경 이인영은 충주성에서 철수하여 제천으로 후퇴한 유인석의 제천의병에 합류했다.²⁰⁾ 그가 제천의병에 투신한 계기는 심상회의병과의 갈등 때문이었다. 아관파천 후 민심의 이반과 군량의 부족과 고종세력의 의진 이탈로 의병의 기세가 급속히 수그러들기 시작하자 심상회는 후사를 도모하고자 개화파로부터 ‘背義表’(의병을 배격한다는 증서) 수 백장을 발급받았다. 이때 심상회는 자신의 친지이자 이인영의 중군인 韓鎮國이 배의표의 수령을 거부하자 그를 전격 처형하였다. 이에 이인영은 자신보다 군세가 강한 심상회부대를 감히 대적치 못하고 은신처로 피하였다. 이에 통솔자를 잃은 이인영부대는 처음에는 각지로 흩어졌다가 나중에는 그 일부가 제천의병에 흡수됨에 따라 해체의 길을 걸게 되었다.²¹⁾ 당시 이인영의 종사 ‘李球采’는

17 李正奎, 「從義錄」,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 의병항쟁사자료집』 1,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1971, 29쪽. 유인석의 을미의병운동에 대해서는, 오영섭, 「을미의병의 결성과정과 군사활동」, 『軍史』 43, 2001.

18 金河洛, 「金河洛陣中日記」,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1, 590-591쪽.

19 李昭應, 「斥和學義事實大略」, 『昭義新編』 권8, 中央出版文化社, 1981, 486쪽.

20 李正奎, 「從義錄」, 36쪽.

군사를 이끌고 자신에게 오라는 심상희의 명령성 권유를 마다하고 양근의 용문산에 피신해 있다가 제천의진으로 들어갔다.²²⁾

해체기에 접어든 제천의병내에서 이인영은 주목할 만한 활동을 펼쳤다. 1896년 5월 중순경 그는 우수한 무기와 정규의 군사훈련으로 무장하여 상당한 전투력을 보유한 呂國安 등 7인의 청국병을 소모해 왔다. 청일전쟁에 참여했다가 미처 귀국치 못한 패잔병 내지 잔류병으로 추정되는 이들 7인의 청국병은 왜적을 원수같이 여길 정도로 배일의식이 투철한 군사들이었다. 이들은 제천의병이 친위대장령 張基濂이 거느린 개화관군과 제천성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일 때에 주력군의 역할을 맡았다.²³⁾ 아울러 이인영은 申芝秀·元奎常 등 무용이 뛰어난 장수들과 함께 활동하며 水安堡와 可興의 일본군수비대를 여러 번 공격했으나 무기열세와 군량부족으로 인하여 후퇴하고 말았다.²⁴⁾

1896년 5월 하순 이인영은 제천성 전투에서 패한 제천의병이 다시 집결하여 전열을 재정비할 때에 別營將을 맡았고,²⁵⁾ 곧이어 後軍 召募將 別陣에 소속되어 신지수·이범직 등과 같이 의병소모활동을 폈다. 관군의 추격에 밀린 제천의병이 保安에 머물 때에 이인영은 유인석에게 大陣을 안창으로 옮기도록 권하고, 자신은 신지수·이범직 등과 함께 砥平으로 향하였다.²⁶⁾ 이후 제천의병이 강원도 旌善을 거쳐 북상할 때에 이인영은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정부의 해산권유에 응하여 귀가했다. 이때부터 그는 정미의병운동 전까지 부모와 처자를 거

21 朴貞洙, 「下沙安公乙未倡義事實」, 『독립운동사자료집』 1, 393-394쪽.

22 朴貞洙, 「下沙安公乙未倡義事實」, 397쪽.

23 張忠植, 「山居漫錄」, 朴成壽·孫承喆 編,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義兵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3, 83쪽; 朴貞洙, 「下沙安公乙未倡義事實」, 453-454쪽; 元容正, 「毅菴柳先生西行大略」,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의병항쟁사자료집』 1, 481-482쪽.

24 朴貞洙, 「下沙安公乙未倡義事實」, 459-460쪽.

25 元容正, 「毅菴柳先生西行大略」, 483쪽.

26 元容正, 「毅菴柳先生西行大略」, 504-505쪽.

느리고 聞慶 산중에 은거했다.²⁷⁾

이상과 같이 이인영은 처음에는 원주지역에서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유인석의 제천의병에 편입되어 의병활동을 벌였다. 특히, 제천의병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의 의병활동은 독자부대를 거느리고 원주지역에서 활약한 유일한 의병부대였음이 주목된다. 그러나 그의 의병활동은 정국변화·무기열세·군사훈련부족·지도부갈등·군수지원미흡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다. 다만 이때의 군사활동은 그가 1907년 11월 전국적 의병조직인 13도창의대진소의 총대장이 되는데 일정하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연합의병진을 구성하여 서울진공전을 추진하는데 귀중한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²⁸⁾

4. 정미의병운동

현재 남아있는 소략한 자료 가운데서 후기의병운동기 이인영의 활동과 의의를 가장 간명하게 서술한 문건은 일본인들이 남긴 재판판결문이다. 여기에는 이인영의 거의목적·진격과정·전투활동·再學시도

27 『騎鶴隨筆』, 「李麟榮」, 126쪽, 「第二回 李麟榮問答調書」, 729쪽.

28 을미의병운동 직후 이인영의 행적은 분명치 않다. 확실치는 않지만, “그는 의병활동의 급선무가 무기구입임을 깨닫고 당시 袁世凱의 대리인으로서 서울에 와있던 청국인 朱鳳令과 교섭하였다. 그리하여 무기구입을 목적으로 대농토를 매각하여 우선 3백 여명의 청국인을 용병 계약했다. 그러나 일부가 도중에 日軍의 공격을 받고 되돌아갔고 일부는 橋谷里까지 來到했는데, 이들의 뒤수습을 감당하느라 가산이 탕진되고 말았다”고 하며, 또 “을미의병운동 후 충북의 德山으로 가서 홍삼을 재배하여 무기구입의 재원으로 사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홍삼재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기구입 재원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체포될 위기에 처하였다. 이때 그는 자신을 체포하려는 20명의 일본헌병과 한국인 보조원을 기습공격으로 물리치고 피신하였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된 고종은 그에게 특사를 내려 덕산의 홍삼사건을 묵인해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鄭達雄, 「韓末 義兵將 李麟榮 研究」, 22-23쪽.

등이 간략히 나와있다.

피고는 文班 출신으로서 특히 排日사상이 심하여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당시의 정부(개화파)에 반항하여 내란 준비를 한 일이 있는 자로 항상 統監정치에 대하여 불평을 품고 있던 자이다. 이어서 前 황제폐하(고종)가 양위하자 要路의 대신을 지목하기를 대국노라 하여 이들을 살육하고 새로이 자기가 믿는 자로 정부를 조직하여 일본인은 물론 기타 외국인을 국외로 구축하는 등 당시의 政事를 변경할 목적으로 난을 일으킬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李球采·李殷瓚 등과 공모하여 그 당시의 거주지인 聞慶에서 이들이 이끌고 온 동지들 및 原州에서 해산된 병정 5백명으로 조직된 3진의 대장이 되어서 前記한 취지로 격문을 전국내에 배포하는 한편, 명분을 바로잡기 위하여 통감 및 각국 영사들에 대하여 “대일본제국이 馬關條約에 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호소하였다. 진군하여 砥平에 이르러 그의 도당이 8천이 되고 이어서 楊州로 가서 동지인 許薦·李康季의 무리와 합하여 그 수효가 1만에 달하여 허위를 군사로 삼고 李康季·李泰榮·李殷瓚·李俊秀·延基羽 등을 각 부장으로 삼아 스스로 총지휘자가 되었다. 도당 각자에게서 병기와 군량을 출현시키고 해산병으로서 부하에 투입한 자로 하여금 탄약을 만들게 하여 일거에 京城으로 들어가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수비대, 기타와 충돌하였다. 거사 이래로 약 4개월 동안 강원도·경기도의 각지에서 대소 약 38회의 전투를 거듭하였으나, 공교롭게도 그의 부친이 서거했다는 보도에 접하여 초상을 치르기 위해 사임하고 귀향하여 3년이 경과한 후 다시 거사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중 체포된 자이다.²⁹⁾

상기 문건의 의하면, 첫째 이인영은 통감정치에 불만을 품고 친일 대신들을 타도하고 신내각을 수립코자 거의했고, 둘째, 이구채·이은찬 등과 함께 원주 일대의 군사를 배경으로 거의하여 전국 각지 및 각국 공사관에 창의격문과 청원문을 보냈으며, 셋째, 관동창의군을 거

29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 의병항쟁재판기록』, 1974, 372-373쪽.

느리고 지평·양주로 이동한 후 허위·이강년 등과 군사를 합하여 13도창의대장이 되었으며, 넷째, 원주·지평·양주를 거쳐 서울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수 십 차례의 전투를 치렀고, 다섯째, 부친의 서거 후 재거를 모색하다가 체포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1) 관동창의군의 결성과 활동

20세기에 초두에 러일전쟁이 개시되자마자 일제는 대한침략에 박차를 가했다. 1904년 1월 일제는 무력으로 韓日議定書를 성립시켜 한국에 대한 정치적·군사적 간섭을 합법화했고,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1905년 11월 을시늑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삼았다. 이어 1907년 7월 정미칠조약을 내세워 대한제국의 내정을 통할하는 次官政治를 실시했고, 곧이어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군대를 무력으로 해산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침략행위는 중앙과 지방의 항일세력들이 다시 의병을 일으키는 직접적 계기로 작용했다.

을시늑약을 전후하여 일제침략을 저지하고 자주국권을 수호하려는 의병들의 항일활동이 전국으로 퍼져갔다. 이러한 시대상황에 자극받아 을미의병운동 이후 향리 聞慶에 은거 중이던 이인영도 암중으로 거의를 도모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침 부친이 와병 중이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효도를 국가와 군주에 대한 충성보다 중시하는 유교적 관습과 사상에 얽매어 거의에 돌입하지 못했을 뿐이었다.³⁰⁾ 그러던 차에 강원도 원주에서 봉기하여 여주·지평·원주 일대에서 활약 중 이던³¹⁾ 서울 출신의 士人 李求采와 원주 출신의 유생의병장 李股瓚이

30 『第一回 李麟榮問答調書』, 721-722쪽.

31 『독립운동사자료집』 3, 511, 516, 666, 669, 706쪽. 이은찬의 의병활동에 대해서는, 金度勳, 「韓末 李股瓚의 聯合義兵運動과 倡義元帥部の 活動」, 『北岳史論』 5, 1998, 157-199쪽.

1907년 8월 말경에 500여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문경으로 이인영을 찾아왔다.³²⁾ 이들은 이인영과 시사를 논의하며 4일간이나 그에게 의병장에 오를 것을 간곡히 청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이때 이들이 이인영에게 거의하여 원주에 元帥府를 세울 것을 원하는 고종 황제의 ‘密勅’을 가지고 그를 설득했다는 점이다.³³⁾

이구채와 이은찬에게서 고종황제의 거의촉구 밀칙을 받은 이인영은 황제와 국가에 대한 충성문제와 부모에 대한 효도문제로 갈등과 번민에 휩싸였다. 위난에 처한 황제와 국가를 구하기 위한 의병운동과 부친의 증환을 돌보기 위한 侍湯업무는 충과 효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이인영같은 유림들에게 있어 우선 순위를 매기기 힘든 문제이기 때문이었다.³⁴⁾ 그때 그의 부친은 이인영에게 “이때처럼 국가와 겨레가 너를 필요로 할 때가 또 있겠느냐”며 출전을 권유했고, 또 이구채·이은찬 등은 시일을 넘겨가며 “이러한 국가 존망의 시기에 국가의 일이 급하고 부자의 은혜는 가벼우니 공을 먼저 하고 私를 나중에 함이 마땅하다”며 곡진히 청했다.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 이인영은 9월 2일 원주에서 거의의 깃발을 들었다.³⁵⁾

의병장에 오른 이인영은 8도에 비분강개에 가득찬 격문을 보내 의병의 봉기를 독려했다. 이때 그는 자신이 밀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근의 충의지사들에게 널리 알리며 그들의 궤기를 촉구했다.³⁶⁾ 그리하

32 「第一回 李麟榮問答調書」, 721쪽; 「義兵總大將 李麟榮씨의 略史(續)」, 『大韓每日申報』, 1909년 7월 28일.

33 『騎牆隨筆』, 「李麟榮」·「李殷贊」, 127-128쪽, “且有密勅 累日懇勸不已”, “丁未變後 上密勅麟榮 設元帥府于原州”.

34 피체 후 심문받을 적에 그는 “아버이 사망 후 복상을 하지 않으면 불효에 해당한다. 아버지에게 불효한 자는 금수와 같다. 금수는 폐하의 신하일 수 없다”거나, “국가의 大事와 一家의 內事는 깊이 연구하면 동일에 귀착한다”며 충성심과 효성심을 동일하게 인식하였다. 「第一回 李麟榮密問調書」, 724쪽.

35 「義兵總大將 李麟榮氏의 略史(續)」, 1909년 7월 28일; 「第一回 李麟榮問答調書」, 721쪽.

36 朴貞洙, 「雲崗先生倡義事實記」, 세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堤川義兵100

여 이인영의 거의 권고에 응하여 다수의 인사들과 군사들이 몰려들어 대규모 연합의진의 체체를 갖추게 되었다.³⁷⁾ 이후 이인영부대는 제천을 무대로 활동 중이던 이강년부대의 주변에서 의병활동을 벌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鳥嶺관문을 지키는 호좌창의장 이강년의 막하장 趙東敎와 합동작전을 폈으나 조동교의 이탈로 파수군 32인을 잃기도 하였다.³⁸⁾

의병활동 초기에 이인영부대는 대부분 유생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군사활동에 지장을 받았다. 게다가 군량이 부족하여 포군들이 자주 남의 식량을 약탈하는 문제를 일으켰다. 따라서 이인영은 의병들에게 “가련한 창생에게 참해를 주어 굶주림과 추위에 빠지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차마 할 바가 아니며 의병의 행위가 아니니, 우리는 오직 天意를 대신하여 그들 매국노 五奸·七賊과 신탁약을 체결하는데 진력한 현 내각원 등의 불의의 재화를 빼앗아 軍資를 도울 뿐이다”고 주장하며 民財의 약탈을 엄히 금함과 동시에 매국노의 곡식과 무기를 빼앗아 사용토록 하였다.³⁹⁾ 이렇게 의진내부를 단속한 이인영은 원주는 교통이 불편하고 사방에서 적의 공세를 받는 四通八達의 교통 요지이므로 친일파를 격퇴하고 일본군을 축출하고 고종을 구출하려는 대사를 무난히 도모하기 위해서는 楊州로 진격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했다.⁴⁰⁾

의병부대의 향후목표를 서울공격으로 설정한 이인영은 관동지역 의병부대의 편성작업과 통합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관동창의대장

둘紀念學術論文集』, 제4부(자료소개), 1996, “關東將李麟榮 誇以累戰累捷 公賀而答之 初麟榮稱有密詔 激起義兵 後公兵敗爲賊所擒死”. 또 이인영의 밑지 소지 사실에 대해서는, 『統監府文書』 6, 국사편찬위원회, 1999, 71쪽.

37 「義兵總大將 李麟榮氏의 略史(續)」, 1909년 7월 28일.

38 雲崗李康季先生紀念事業會 編, 『雲崗李康季先生倡義錄』, 1986, 25, 28-29쪽.

39 「義兵總大將 李麟榮氏의 略史(續)」, 1909년 7월 29일.

40 『騎驢隨筆』, 「李麟榮」, 127쪽; 「第一回·第二回·第三回 李麟榮問答調書」, 723, 728, 740-741쪽.

에 이인영, 總督將에 이구채, 中軍將에 이은찬, 좌군장에 方仁寬, 우군장에 權重熙, 유격장에 金海鎭, 좌선봉장에 鄭鳳俊, 右선봉장에 金炳和, 후군장에 蔡相俊, 運糧官에 玄履甫, 재무장에 申昌先·閔春元, 좌총독장에 金顯福, 우총독장에 李貴成, 鎭衛隊司令部에 閔肯鎬 등이 임명되었다.⁴¹⁾ 이로써 서울진격전을 펼친 13도창의대진소의 모태이자 기반인 이인영의 관동창의군이 결성되었다.

관동창의군의 직임과 편제를 살펴보면, 관동창의군의 주도인물은 의병장 이인영, 총독장 李求采, 중군장 이은찬 3인이었다. 이중 관동창의군의 총책임자인 이인영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을 의병장에 추대하려는 이구채·이은찬의 방문을 받기 전에 이미 거의를 모색하고 있었다. 일제측 기록에 의하면, 그는 거의 직전에 비밀리에 상경하여 ‘李紹榮’⁴²⁾ 및 ‘二三의 有志’ 등과 거의에 관하여 협의한 일이 있으며, 또 1907년 봄 고종황제의 밀지를 받고 연해주로 망명한 유인석으로부터 의병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위임받았다고 한다.⁴³⁾ 따라서

41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8, 國史編纂委員會, 1968, 157쪽. 상기 인사들의 의병 활동에 대한 개략적 설명은, 金順德, 「경기지역 의병운동 참가층 분석 (1905-1910)」, 『한국 근현대 경기지역 사회운동 연구』, 관악사, 1998 참조

42 李紹榮은 일제측이 ‘義兵干連者’로 간주한 李裕寅의 아들이다. 그런데 고종의 ‘別入侍’로 입신하여 한성부판윤·탁지부대신·중추원부의를장·경상도관찰사·보원회부회장 등직을 지낸 ‘賣卜大臣’ 이유인은 을사조약 전후 경상도지역의 의병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는 “이유인이 영남의 窟窟을 선동하고 기우만이 호남의 의병 잔당을 선동하니 당내가 날로 확산되어 三南에 연락되었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한때 일제헌병대에 피체되어 의병과의 관련을 추궁받기도 하였고, 나중에 고종황제와 의병세력 간의 내용관계를 밝히려는 일제측의 조사가 본격화되자 하향·도피 중 1907년 6월 鄉第가 있는 경북 醴泉에서 자진하였다. 『大韓每日新報』 1904년 9월 7일자, 1905년 9월 10일자, 1907년 6월 23일자; 『皇城新聞』 1905년 9월 7일자; 朴成壽 주해, 『落日』 下, 서울신문사, 1993, 63-64쪽.

43 「第二回·第三回 李麟榮問答調書」, 729, 734, 741쪽. 이인영이 거의 전에 미리 상경하여 이소영과 2-3의 유지를 만나 은밀히 거의를 논의했다는 일본측의 첩보에 근거한 구체적인 추궁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을미의병운동 때와 마찬가지로 을사조약 전후에도 조야의 유교적 전직관료와 지식인들은 고종황

제의 절대 권위를 상징하는 밀지가 의병운동을 대동·발단시킴은 물론 의병운동의 조직화·체계화·장기화·전국화하는데 직결된 긴요한 신물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명망있는 전직관료인 李南珪가 최익현에게 보낸 편지에 “衣帶 속에 감춘 密詔만이 온 나라의 신민들이 우러러 바라는 바이다”(『修堂集』, 권3, 「答崔贊政益鉉」, (1906. 朝廷以勤王之命 號名四方 則輟葑操兮 擲鋤荷戈 何讐不報 何賊不討 而今既無望於此矣 惟衣帶密詔 是舉國國民 所共踴侯 求救一事 亦須要此), 을사조약 후 金福漢과 같이 상경하여 을사늑약 반대 및 토역 상소를 올린 林翰周가 “속히 哀痛詔를 내려 충의지사를 소모하라”(『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2, 「洪陽紀事」, “伏願聖明 廓揮乾斷 發奮神武 亟令有司 收捕前後賣國之賊 一無遺 併加驅戮 卽下哀痛之詔 召募忠義, 한말 의병의 충수 유인석이 을사조약 직후에 전국에 발송한 통고서에 “(은 신민이) 임금의 마음을 받들어 국가를 살리고 자신을 간수하는 계책을 강구해야 한다”(『毅庵集』 권25, 「通告一國縉紳士林書」, (1905.11.25). 公卿大夫 立朝在野者 非止千百 一國儒林 亦復累十萬 承君上之心 辦活國置身之計 連結齊與 爲所當爲 舉兵討之 固可也”), 근왕주의적 계몽운동가 겸 이나 키스트로서 고종황제와 관계가 깊었던 李會榮의 행적을 가장 잘 알고있는 이나키스트 李丁奎가 1913년경 이회영이 일시 귀국하여 항일운동을 벌일 때에 “地方富豪를 움직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宮中을 連絡하여서 高皇帝의 밀지를 받는 것이었다”(李丁奎, 「友黨 李會榮 先生 略傳」, 『又觀文存』, 三和印刷, 1974, 36쪽), 그리고 백범 김구의 정신적 스승인 高錫魯가 고종황제가 서거한 후에 지은 「書示同志士友文」에 “(고종황제가) 사망의 忠義之士들에게 密詔를 보내어 의병운동이 펼쳐졌으나 성사되지 못했다”(『後凋集』 附錄 下, 「行狀」, 吾君不幸值世運變易之日 逆臣隳夷 勸成條約 勢不得誅之伐之 密詔四方 忠義之士 事發不成)고 말했던 여러 사례들에 분명하게 나와있다. 그리하여 을사늑약 전후 항촌에서 거의를 모색 중이던 인사들(元容八·李康季·高光洵·沈南一·安奎洪·奇參衍·蔡應彥 등), 서울사정과 현하시국을 파악하고자 혹은 討逆상소를 올리고자 급히 상경한 인사들(柳麟錫·崔益鉉·金道鉉·鄭鏞基·朴箕燮·盧應圭·安重根 등), 그리고 고종세력으로서 혹은 그들의 문객으로서 중앙에서 고종의 구국활동을 돕고 있던 인사들(鄭煥直·閔宗植·許薦 등)이 고종황제와 그 측근 인사들로부터 밀지를 직접 수령하거나 아니면 의진을 적극 후원하겠다는 구두상의 내락을 밀지 대신에 받은 후에 지방으로 내려가 의병을 일으켰다. 심지어는 을사늑약 후 거의할 목적으로 단신으로 상경하여 직접 고종세력을 찾아가서 밀지를 요청한 사례(『騎鶴隨筆』, 「盧炳大」, 130쪽. 乙巳冬 五條約成 炳大北向痛哭 卽赴京見李判書容元曰 今國事去矣 如得密詔 可有爲 容元得詔 有曰 前參奉倡義臣盧炳大 一依宣祖癸巳例 賜奮忠靖亂二等 以別薦特差秘書院秘書丞), 유자로서 고종의 밀자를 받지 않고 일어났다 하여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사례(『騎鶴隨筆』, 「李錫庸」, 今讀李義士錫庸之傳 於乎李君 其庶幾乎 或者 以爲上無哀痛之詔 下無致死之

을미의병운동 시에 보여준 강렬한 배일활동과 을사조약 후 상경하여 벌인 이러한 은밀한 항일활동의 결과로서 이인영은 이구채·이은찬의 권고에 따라 거의하기 전에 이미 서울의 고종세력으로부터 의병장감으로 낙점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 이인영이 “양반으로 학식도 있고 쓸모있는 인물들”⁴⁴⁾이라고 말한 李求采⁴⁵⁾와 李殷瓚(1877-1909)⁴⁶⁾은 고종세력이 작성·하사한 밀지를 이인영에게 전달하고 그를 의병장에 추대한 인물들이다. 대한제

責 而擅動義旅 非儒者第一義諦也)까지 있었다. 따라서 이인영의 상경이 고종세력과의 내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결단에 의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그가 상경하여 고종세력들과 거의를 도모한 사실은 분명하다고 보여진다.

44 「第一回 李麟榮問答調書」, 722쪽.

45 이구채는 자료에 따라 李求采·李求菜·李九菜·李九載·李求載로 각기 달리 나온다. 여기서는 ‘李九載’(일본측은 시종 ‘李九載’로 부름)의 정확한 글자가 뭐냐는 일본측의 물음에 “李九載의 자음은 같으나 ‘李求采’로 쓰는 것이 옳다”는 이인영의 공술에 따라 ‘李求采’로 보았다. 한말 관동창의군과 13도창의 대진의 결성을 막후에서 주도한 ‘서울사람’ 이구채의 존재는 명확히 알 수가 없다. 다만, 이구채는 이인영이 단발령 후 원주에서 의병활동을 벌일 때에 그의 ‘중사’였던 ‘李球采’(朴貞洙, 『下沙安公乙未倡義事實』, 397, 400쪽)이거나, 아니면 “이구채는 이강년이나 이은찬에 비해 ‘文才學識’이 뛰어난 인물이나 원래 나오는 교제가 없었다”(『第一回 李麟榮問答調書』, 728쪽)는 이인영의 발언을 중시할 경우 고종세력의 문객 내지 대리인일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그의 이름이 ‘이구채’가 아니라 ‘李九載’나 ‘李求載’가 옳다면, 고종의 측근인 李會榮의 수하로서 이회영의 지시에 따라 李冀永과 함께 중앙관료와 지방의 병간의 연락업무 및 지방의병에 대한 재정적·전략적 지원임무를 맡았던 ‘成載九’(李丁奎·李觀植 『友堂李會榮略傳』, 乙酉文化社, 1985, 40쪽)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46 전주이씨 德泉君(정종의 제10남)의 후예인 이은찬은 8대조 李籛이 군수를 지내고 7대조 李星年이 학행으로 감역에 오른 이래 관계 진출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몰락양반의 자제였다. 다만 그가 속한 덕천군과 李匡師·李肯翹·李建昌·李建昇·李建芳 등을 배출한 유명한 소문 가문이며, 또 모친이 고종의 측근으로서 재아의 의병운동을 은밀히 후원한 李會榮과 같은 경주이씨 李選榮의 딸이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全州李氏德泉君派譜』, 권1, 1983, 47-48, 88-94, 194-195, 349쪽.

국기의 신문과 유림들의 문집·창의록에 그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중앙과 향촌에서의 정치적·사회적 비중은 그리 높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인이 고종황제 내지 중앙관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만 얻을 수 있는 고종 명의의 밀지를 가지고 이인영을 설득했던 것을 보면, 이들은 고종세력의 문객 내지 대리인이 아니었나 추정된다. 양인 가운데 전자는 의병부대의 전략과 전술을 총괄하는 총독장을 맡았고, 후자는 인사·재무·부대배치·병참 등 의병부대의 안살림을 도맡아 처리하는 중군장을 맡았다. 따라서 양인은 관동창의대장 이인영의 명목상·허위상 지위를 능가하는 실권자들이었덤 셈이다.⁴⁷⁾

진용을 갖춘 이인영의 관동창의군은 원주에서 지평으로 이동했다. 관동창의군은 지평에서 1개월간 머물며 일본군과 수 차례의 전투를 벌이는 한편 서울진격을 위한 군사력 보강에 나섰다. 그리하여 16陣의 병력을 합하여 약 수 천명의 의병이 이인영의 휘하에 모여들게 되었다.⁴⁸⁾ 이렇게 많은 의병을 거느린 이인영은 밀지를 통하여 국왕의 권위를 위임받은 관동창의대장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무난히 수행함으로써 13도창의대장에 오를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나아가 수 천의 군세를 바탕으로 이인영은 다음과 같은 의병활동을 전개했다.

우선, 이인영은 친일매국노와 일본군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하려면 서울진공작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서울진공작전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대규모 연합부대를 편성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다. 이를테면, 이인영은 “용병의 요체는 부대가 홀로 활동하는 것을 피하고 일치 단결하는

47 관동창의군은 재야유림 이인영과 중앙세력 이구채·이은찬의 연합체였다. 즉, 이인영의진은 한말 대규모 연합의진의 경우처럼 중앙세력과 지방세력의 연대에 의해 결성되었다. 그러나 휘하의 직속병사를 배경으로 총독장과 중군장을 차지한 중앙세력이 의진의 실권을 장악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독자적인 군사기반이 없는 이인영은 관동창의대장이라는 명목상의 직위만을 지닌 실권이 취약한 의병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48 「十三道倡義大將李麟榮速捕始末」, 719쪽.

데 있으니 각 도의 의병을 통일하여 뜻을 무너뜨리는 형세를 타서 近畿로 쳐들어가면 천하에 우리 소유가 되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며, 韓國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유리함을 볼 수 있을 것이다”는 수도탈환전략을 제시했다.⁴⁹⁾ 그리하여 그는 1907년 10월경 西北 양도를 제외한 전국 각 지역의 의병장들에게 통합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서울로 진격하려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경기도 楊州에 모일 것을 촉구했다.⁵⁰⁾

다음, 이인영은 1907년 10월 16일에 서울사람 金世榮을 상경시켜 일본의 대한침략을 성토했는 격문을 13도 관찰사, 대한매일신보사, 각국 공사관 및 일본 統監에게 전하게 하였다. 이때 김세영은 이인영이 집필한 원고와 의병대장의 인장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 ‘거대한 날인’이 들어있는 격문을 만들어 목적지에 발송함으로써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⁵¹⁾ 그 격문의 요지는 일본의 불의와 횡포를 따지고 한국의 어려운 처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의병은 순수한 愛國血團이므로 열강도 이를 만국공법에 입각하여 전쟁단체로 인정해야 하며, 또 정의와 인도를 국제관계의 전범으로 삼고있는 나라들은 반드시 의병을 동일한 목소리로 성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⁵²⁾ 이것은 제국주의 열강들에 대해서 한국의 관동창의군을 비롯한 항일의병의 대일항전이 바로 독립전쟁임을 국내외에 널리 알린 의미있는 선언이었다. 나아가 이인영은 1907년 10월 31일자로 大韓關東信義將 李麟榮과 기타 同國人 등의 서명이 쓰여진 격문을 각국 영사관과 미국주재 한인들에게

49 「義兵總大將 李麟榮氏의 略史(續)」, 1909년 7월 29일. “用兵之要는 避其孤獨而在於一致團結 則統一各道之兵야 乘潰堤之勢야 近畿犯入이나 舉天下不能爲我寶物 可見有利於韓國之解決矣리”.

50 「義兵總大將 李麟榮氏의 略史(續)」, 1909년 7월 29일.

5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警秘發 제786호, 「大韓每日申報卜暴徒」; 「第二回 李麟榮問答調書」, 734-735쪽.

52 「義兵總大將 李麟榮氏의 略史(續)」, 1909년 7월 30일. 鄭達雄, 「韓末 義兵將 李麟榮 研究」, 32-33쪽.

보냈다.⁵³⁾

우리들은 일치 협동하여 身命을 우리의 邦家에 바쳐서 국가 독립의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잔인한 일본인들의 통탄할 만한 횡포와 악행을 전 세계에 호소해야만 한다. 그들은 교활하고 잔인하며 실로 文化와 人道의 원수들이다. 우리들은 전력을 다하여 모든 일본인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앞잡이와 협력자로 전락한 사람들과 포악한 일본 병사들을 모두 멸절시켜야 한다.⁵⁴⁾

이러한 일련의 선전활동을 통하여 이인영은 국내외의 외국인들과 동포들에게 의병전쟁의 정당성과 일제의 야만성을 분명히 밝히고 한국문제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13도창의대진소의 서울 진격작전이 무난히 성사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⁵⁵⁾

마지막으로, 이인영은 13도창의대장에 오르기 전에 지평 일대에서 일본군과 두 차례 대규모 전투를 치렀다. 이를테면 지평에 집결한 관동창의군과 각처 의병은 양주로 이동하여 13도창의대진소를 구성하기 전에 일본군수비대 및 친일관군과 수 십회의 격렬한 전투를 벌였는데, 이중 규모가 큰 전투는 1907년 11월 7-9일에 전개된 三山전투와 麻田전투였다. 이 양차의 전투는 후기의병운동기에 항일의병들이 일본군을 상대로 전개한 전투 가운데 가장 규모와 피해가 컸던 전투로

5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警秘發 제786호, 「大韓每日申報」暴徒; 「第二回 李麟榮問答書」, 734쪽.

54 이 격문의 日譯文과 영역문에 대해서는 『統監府文書』 5, 1999, 158쪽; 『日本外交文書』, 제41권 제1책, #856. “Manifesto to All Koreans in All Parts of the World.”

55 관동창의군의 격문 가운데 현재 全文이 남아있는 것은 1907년 11월 15일 의병 진압을 위해 출동한 근위대 병사들에게 마음을 돌려 함께 왜구를 토멸하여 강도를 환수하고 皇位를 회복시키자고 주장한 「警告我大韓近衛隊出駐所」가 유일하다. 이 격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8, 156-157쪽.

파악된다.

먼저 삼산전투를 살펴보면, 관동창의군 1천여명은 원주읍에서 7-8리 정도 떨어진 지평군 上東面 蟾實洞·三山里·舟川里·山梅實洞에 머물렀다.⁵⁶⁾ 이때 의병들은 군서기를 체포하여 군용금을 징수하는 한편 일본군의 공격에 대비하여 서울로 통하는 松用洞·伊雲里·板館堡洞 등 요지에 각각 2-30명 정도의 보초를 세웠다.⁵⁷⁾ 처음에 1천여명이던 의병의 숫자는 각처 의병이 모여들면서 곧이어 2천명으로 불어났다. 의병들은 원주의 일본군수비대와 서울에서 출동한 일본군 2개 중대와 이틀 간에 걸쳐 치열한 혈전을 벌였다. 그러나 연발소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이 山砲隊까지 동원할 정도로 우세한 화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의병들은 안타깝게도 2-300명의 사상자를 내고 패주했다.⁵⁸⁾

다음 마전전투를 살펴보면, 11월 8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1천여명의 연합의병이 마전읍 일대에 집결하여 헌병분견소를 포위하고 일본군수비대를 공격할 기세를 보였다. 이에 숫적 열세에 빠진 일본군수비대는 인근 지역의 수비대에 급히 원병을 청하였다. 연합의병은 마전읍의 일본군수비대와 급히 증파된 금화수비대 및 철원수비대를 상대로 장시간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결국에는 2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패주하였다.⁵⁹⁾

이처럼 수 천명의 의병들과 5-600명의 일본군이 동원된 삼산전투와 마전전투는 양측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격돌이었다.⁶⁰⁾ 무기의 열세로 인해 두드러진 전과를 올리는 못했지만, 양차의 대전투는 이인영의 관동창의군과 각지 의병들이 서울진격전에 대비하여 전열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정찰 및 공작 활동 뿐 아니라 치열한 전투를 동시

56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8, 93쪽.

57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8, 104, 108쪽.

58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8, 104-105, 108쪽.

59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8, 109-110쪽.

60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10, 129쪽.

에 치러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2) 13도창의대진소의 편제와 서울진공작전

이인영의 관동창의군은 힘겨운 전투를 치르면서 양주로 진출했다. 1907년 9월초에 원주에서 봉기한 관동창의군은 지평·홍천·춘천·양구 등지를 통과하여 12월 초순경에 양주에 도착했다. 당시 지평을 떠나 양주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의병의 정예부대 4백여명과 일본군 6-70명이 맞붙은 춘천과 양구 사이에서의 두 차례 전투는 격전이었다.⁶¹⁾ 양주에 도착한 관동창의군은 서울 동부 및 강원 영서 일대에서 활약 중이던 許薦부대·閔肯鎬부대를 비롯한 다수의 의병부대와 합류하여 13도창의대진소를 구성하게 되었다. 더욱이 양주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허위부대는 이인영부대와, 이인영부대는 이강년부대와 각기 연통하여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⁶²⁾ 양주 집결 후에 이들 부대는 자연스럽게 연합의진을 구성할 수 있었다.

이인영의 격문에 호응하여 양주에 집결한 의병부대는 총 48진, 대략 1만명에 달하였다.⁶³⁾ 그 내역을 살펴보면 강원도에서 민공호부대가 2천명, 이인영부대가 1천명을 비롯하여 강원도 의병이 약 6천명 정도였고, 경기도의 허위부대가 약 2천명, 평안도의 方仁寬부대가 80명, 함경도의 鄭鳳俊부대가 80명, 전라도의 문대수부대가 100명 등이었다.⁶⁴⁾ 그러나 기왕에 알려진 것과 달리 이강년부대는 아직 충청좌도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13도창의대진에 가담치 못했다.⁶⁵⁾ 하여튼

61 「第三回 李麟榮問答調書」, 740쪽.

62 『大韓每日申報』, 1908년 11월 28일.

63 「十三道倡義大將李麟榮速捕始末」, 719쪽.

64 「第三回 李麟榮問答調書」, 738쪽,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 『朴殷植全書』上,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75, 466쪽.

65 이때 이강년의 호좌창의군은 영월·단양·청풍·죽령·풍기 등지에서 일본군

서울진공작전을 앞둔 시점에서 특정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던 개별 의병부대들이 고립성·분산성을 극복하고 양주로 집결하여 대규모 연합부대를 결성한 것은 서울진공작전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의병운동의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말 의병운동사상 최초의 전국적 연합의병의 편제를 나타낸 13도연합의병은 전투부대로서 두 가지 중대한 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하나는 느슨한 지휘체계와 복잡한 명령체계 및 박약한 기동성으로 인해 효율적인 근대식 군사훈련을 이수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하기가 애초부터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이들 1만 명의 연합의병 가운데 재래식 화승총으로 무장한 해산군인은 이인영부대와 민궁호부대 및 강화도·청주 등지의 해산병을 포함하여 무려 3천명에 달했던 반면, 정작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 대항할 수 있는 洋銃을 지닌 진위대의 해산병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 전력상 압도적인 열세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⁶⁶⁾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양주에 집결한 연합부대의 훈련과 규모와 화력은 일본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기에는 기대만큼의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13도창의군의 서울진공작전은 그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성사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전개되고 있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양주에 집결한 의병장들은 전체 통솔자가 필요하다는 자체 진단에 따라 서로 긴밀한 협의를 거쳐 13도창의대진소를 성립시킨 후 이인영을 13도창의대장에 추대하였다.⁶⁷⁾ 이때 이인영이 위망이 비슷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13도창의대장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구채·

수비대와 전투 중이었다 그 때문에 이강년부대는 1908년 봄에서야 경기동부 및 강원영서 지역으로 올라왔다. 李康季, 『雲崗李康季先生信義錄』, 1907년 9월-1908년 3월.

66 「第三回 李麟榮問答調書」, 739-741쪽.

67 「第三回 李麟榮問答調書」, 737쪽.

이은찬을 통하여 고종의 밀지를 받은 의병장으로서 각처 의병을 양주로 집결시키는데 성공했고, 양주에 집결한 여러 의병장들 가운데 신분과 문벌이 가장 높았으며,⁶⁸⁾ 그리고 을미의병운동 때 다른 사람보다 공평하게 행동하여 타인의 신뢰를 얻었다는⁶⁹⁾ 점등이 다각도로 고려된 결과였을 것이다.

이상의 요인들 외에도 이인영이 13도창의대장에 오르는데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은 없었을까? 양주에 모인 장수들 가운데 이인영은 허위보다 11세 아래이며, 1865년생인 민궁호보다 한 살이 어렸다. 또 관력면에서 허위는 칙임관으로서 평리원재판장·의정부참찬·평리원수반판사·비서원승 등 비교적 고위직을 역임한 고관출신이며,⁷⁰⁾ 민궁호는 고위급 무관인 원주진위대의 정교를 지낸 무관출신이었던 반면, 이인영은 그야말로 한직인 무임직의 大成殿 齋任을 거쳤을 뿐이었다. 군사수에 있어서도 민궁호와 허위는 이인영보다 2배나 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있었다.⁷¹⁾ 게다가 양주 집결 시에 이인영은 허위에게 日貨 백원을 받았을 정도로 자체 군자금에 부족했고, 13도창의대장에 오른 후에도 군량관 金炳華가 재정권을 쥐고있었기 때문에 재무처리에 일체 관여하지 못했다.⁷²⁾ 더욱이 중군장 이은찬은 연합의병의 서울진공 작전을 총기획했고 관동창의군의 안살림을 도맡아 관리했기 때문에 이인영에 못지않은 실권을 지니고 있었다.⁷³⁾ 이상의 여러 사실을 감

68 이인영은 정통양반 가문의 長子였던 반면, 허위는 비록 고관을 지냈지만 조상의 출자가 보부상에서 연원했고, 고위급 무관인 민궁호는 함경도 北靑출신으로서 상민출신일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며(車相贊, 『朝鮮四千年秘史』, 「閔肯鎬의 略史」, 賢明書林, 1979, 298쪽), 이구채·이은찬은 자원하여 이인영의 휘하에 들어간 인물들이었다.

69 「第三回 李麟榮問答調書」, 738쪽.

70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國譯) 許爲全集』, 亞細亞文化社, 1985, 288-289쪽.

71 「第三回 李麟榮問答調書」, 738쪽.

72 「第三回 李麟榮問答調書」, 739쪽.

73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 467-468쪽. 한말 의병운동 당시 中軍將의 막중한 역할에 대해서는, 元容正, 「毅菴柳先生西行大略」, 486-487쪽. 또 糟谷憲一,

안할 때 이인영이 13도창의대장에 등단하기 위해서는 허위·민공호·이은찬 등의 권위와 실권을 능가하는 어떠한 정치적·사회적 요인 내지 배경을 갖추어야만 했다.

민씨척족(三房派)과 같은 여흥민씨인 민공호(立岩派)의 경우는 분명치 않지만, 이인영·허위·이은찬 등은 모두 을사조약 후 고종황제나 혹은 그 측근에게서 밀지를 받았다. 이후 그들은 밀지의 권위에 힘입어 병사와 군자를 널리 모집하여 의진을 결성한 다음 각기 경기·충청지역을 무대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이들이 이인영의 격문에 호응하여 1907년 12월 양주에 모였을 때 중앙에서 다시 밀사가 내려와 고종황제 명의로 ‘哀痛詔’를 의진에 전달했다. 그후 이인영은 휘하의 金明成을 허위에게 보내 자신에게 밀지가 내려왔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전국에 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⁷⁴⁾

그런데 이때 여러 의병장들 가운데 이인영이 참봉 陳明(命)燮을 통하여 고종황제의 밀지를 받았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⁷⁵⁾ 피체 후에 이인영은 “서울에 올라와 관직에 오르라”는 내용의 勅書를 개봉도 하지 않고 물리쳤다고 공술했지만, 이는 자신의 정신적 지주인 고종황제의 안위를 염려하여 사실을 은폐한 거짓 진술이었다.⁷⁶⁾ 『기로수필』·『통감부문서』·허위의 공술 등으로 미루어, 이인영이 재차 밀지를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여진다. 다만 당시에 이인영을 후원한 중앙세력이 고종황제인가 아니면 고종황제의 항일운동을 적극 보좌한 근시인가 하는 점이 명확치 않을 뿐이다. 하여튼 고종황제의 신물과 같은 밀지는 고종황제의 권위를 일시 위임하는 성격을 지닌

「初期義兵運動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4, 1977.

74 「第一回 李麟榮問答調書」, 726쪽.

75 「第一回 李麟榮問答調書」, 724-726쪽. 당시 진명섭은 이인영·이강년·신돌석에게 밀지를 전해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이인영을 만난 후에 민공호에게 가다가 일본병에게 살해되었다.

76 이는 분명한 물증을 제시하는 일본측의 거듭된 추궁에도 불구하고 전봉준이 자신과 대원군과의 관계를 한사코 부인했던 것과 같은 경우이다.

문건이었기 때문에 이인영은 재차 밀지를 통하여 고종세력의 신임을 확보한 연후에 비로소 13도창의대장으로서의 자격을 확고히 갖출 수 있었던 것이다.⁷⁷⁾

1만여명이 양주에 집결하여 전국적 연합의병 부대가 성립되자 이인영은 13도창의대진소의 직임을 분장하였다.⁷⁸⁾ 그리하여 13도창의대장에 李麟榮, 전라창의대장에 文泰洙, 호서창의대장에 李康季, 교남창의대장에 申堧石, 진동창의대장에 許蔭(亞將 朴正彬), 관동창의대장에 閔肯鎬, 관서창의대장에 方仁寬, 관북창의대장에 鄭鳳俊 등이 임명되었다.⁷⁹⁾ 그런데 이러한 연합의병의 편제는 일견해서 한반도의 남북을 아우르는 전국적 대표성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경기도와 강원도 양도의 의병들이 주축을 이룬 것이었다. 게다가 아직 북상하지 못한 문태수·이강년·신돌석 등 하삼도의 의병장들이 13도창의대진소의 직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13도창의대진소의 초기 지도부 조직은 변화할 여지를 안고 있었다.

13도창의대진소의 지도부 조직은 1개월 후인 1908년 1월경에 약간의 개편이 가해졌다. 이는 일본군수비대와 전투하느라 서울진공작전에 가담치 못하는 부대들이 나타남에 따라 취해진 부득이한 조치로 보여진다. 그리하여 13도창의대장에 이인영, 軍師長에 허위, 관동창의대장에 민공호, 호서창의대장에 이강년, 교남창의대장에 박정빈, 진동창의대장에 權重熙, 관서창의대장에 방인관, 관북창의대장에 정봉준 등이 임명되었다.⁸⁰⁾ 이러한 조직개편의 특징은 아직도 영·호남 지역에서 활동 중인 문태수·신돌석을 배제하고, 조만간 상경이 가능할

77 吳瑛覺, 「韓末 義兵運動의 勤王的 性格」, 72-82쪽. 일제측도 이인영이 太皇帝(고종황제)의 「勅書」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統監府文書』 6, 1999, 71쪽.

78 13도창의대진소의 결성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신용하, 「全國 ‘十三道倡義大陣所’의 聯合義兵運動」, 41-44쪽.

79 「第三回 李麟榮問答調書」, 738쪽.

80 「義兵總大將 李麟榮氏의 略史(續)」, 1909년 7월 30일.

것으로 보이는 충청도의 이강년을 그대로 두고, 경기도를 맡은 진동창의대장 허위를 군사장(참모장)⁸¹⁾으로 승급시킨 것이었다. 이 중 나이·무용·관력 등 여러 면에서 이인영을 능가하는 허위가 1개월 사이에 군사장이 되어 13도창의대진소의 제2인자로 부상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이를테면, 허위의 군사장 취임은 13도창의대진소의 의병권력을 이인영과 허위가 대략 동등하게 소유하거나 행사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이러한 조직개편은 직할군을 거느리지 못한 명목상의 의병장 이인영의 급속한 권위약화로 이어지기 마련이며, 결국에 가서는 부친 사망 후 이인영이 이를 기화로 황급히 귀향하게 되는데 다소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여하튼 13도 연합의병 부대의 조직개편을 마친 이인영은 서울탈환을 위한 진격명령을 내렸다.

이은찬이 구상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탈환작전의 기본구상은 병력을 이끌고 동대문밖 30리 지점에 집결하여 대오를 정비한 다음 정월을 기하여 서울에 입성하는 것이었다. 당시 이인영의 서울진격전의 목적은 일제 통감부를 타격하여 ‘城下의 盟’을 맺고 종래의 소위 신협약 등을 파기하여 대대적 항일활동을 벌이는 한편,⁸²⁾ 馬關條約의 내용대로 한국의 독립과 황실의 안전을 꾀하는 것이었다.⁸³⁾ 이러한 복안에 따라 이인영은 먼저 허위로 하여금 300명의 선봉대를 이끌고 진군토록 하였다.

서울로 진격한 허위의 선봉대는 미처 본대가 도착하기 전인 1908년 1월 15일경에 매복 중이던 일본군의 선제공격을 받고 장시간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형세가 불리하여 끝내 후퇴하고 말았다.⁸⁴⁾ 당시 허위

81 이인영은 공술에서 ‘參謀長’이라고 표현하였다.

82 『義兵總大將 李麟榮氏의 略史(續)』, 1909년 7월 30일.

83 『第二回 李麟榮問答調書』, 731쪽.

84 『大韓每日申報』 1909년 9월 21일자 ; 『旺山許蔭先生學義事實大略』, 『독립운동사자료집』 2, 242쪽.

의 선봉대가 패퇴한 것은 무기의 열세는 물론 전군이 약속한 기일 내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급기야 3일 후에 이인영이 약 2천 병력을 거느리고 동대문밖 30리 지점에 당도하여 후군의 도착을 기다렸으나⁸⁵⁾ 선봉대의 패배로 인해 의병측의 사기는 이미 상당히 꺾인 상태였다. 게다가 1907년 10월부터 1908년 2월까지 일본군과 수 십회의 격전을 치른 관동창의군과 13도창의대진소의 탄약재고량이 바닥을 보였기 때문에⁸⁶⁾ 이인영의 서울진격작전은 무산될 위기에 처하였다.

내우외환이 중첩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1월 28일 이인영은 부친의 부음을 접하게 되었다. 이에 이인영은 “나라에 불충함이 부모에 불효함이 되고 부모에 불효함이 나라에 불충함이 된다. 그 道는 하나며 둘이 아닌 것인즉 나는 國風을 지켜 3년상을 치루어 효도를 마친 후 재기하겠다”며 후사를 군사장 허위에게 당부하고 문경의 본가로 내려갔다.⁸⁷⁾ 이인영이 귀향하면서 ‘義’를 중시하라는 통문을 각 진에 배부했기 때문에 모든 의병부대는 서울진격전을 중시했다.⁸⁸⁾ 이로써 경기·충청도 의병들이 연합하여 일시에 서울을 탈환하려던 도성탈환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문경의 본가로 돌아온 이인영은 부친상을 치르고 3년상을 마친 연 후에 다시 의병을 일으키고자 하였다.⁸⁹⁾ 그러나 일제의 헌병과 경찰은 13도창의대진소의 총대장 이인영을 체포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다. 이때 항일운동의 대선배인 유인석이 그에게 외국으로 피신할 것을 권했으나 거절했다. 일본군의 수색이 점점 심해지자 부득이 자신

85 「第二回 李麟榮問答調書」, 731쪽. 『騎驢隨筆』에는 이인영이 몸소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대문밖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86 F. A. 맥켄지 저, 신복룡 옮김, 『대한제국의 비극』, 평민사, 1985, 186, 189쪽.

87 『騎驢隨筆』, 「李麟榮」, 127쪽.

88 「第一回 李麟榮問答調書」, 723쪽; 「義兵總大將 李麟榮氏의 略史(續)」, 1909년 7월 31일.

89 「第一回 李麟榮問答調書」, 727쪽. 일본인 심문관은 이인영이 복상 중에 군수금을 모집하러 다녔고 음으로 의병을 지휘했다고 하였다.

의 이름을 ‘李時榮’으로 개명하고 두문불출하였다.⁹⁰⁾ 그러다가 일제의 검색이 날로 더해가자 노모와 슬하의 두 아들을 데리고 경북 상주군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충북 황간군 金溪洞에 이거하였다.⁹¹⁾ 그러나 끝내 부친의 3년상을 마치지 못하고 1909년 6월 7일 문경에서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었다.

3) 창 의 목적 및 순국 과정

이인영은 천안헌병분대 대전분견소에서 倉富和三郎 헌병중위에게 일차 심문을 받은 후 서울로 압송되어 헌병대위 村井因憲 주재하에 3회에 걸쳐 취조를 받았다. 이때 그는 창 의 목적을 꼬치꼬치 캐묻는 일본인들에게 “馬關條約 내용대로 한국의 독립과 皇室의 안전을 피하고자 했다,”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고 우리의 독립을 공고히한(復我國權鞏固獨立) 연후에 奸臣을 살육하려 했다,” “충군애국의 뜻은 성의에서 나온 것이다”고 응답했다.⁹²⁾ 또 그는 일본측이 반복해서 거의 목적을 추궁하자 “일러전쟁과 군대해산으로 한국의 독립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 거의했다,” “한국의 奸臣을 죽이고 독립을 피하기 위해서 거의했다”고 말했다.⁹³⁾ 나아가 고종황제가 바로 항일의 병운동의 배후이자 窩主라는 확고한 정보와 판단에 따라 고종황제와의 관련 여부를 누차 반복해서 집중 추궁하는 일본측에 대해 이인영은, “본래 타인의 권유는 없었으며 망국의 길을 당하여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군사를 모아 서울에 있는 통감부를 쳐부수고 외인을 몰아내고자 거의했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후원자이자 사상적 지주인 고종황제를 극력 보호하였다.⁹⁴⁾ 이상의 공술로 미루어 이인영은

90 「第二回 李麟榮問答調書」, 728쪽.

91 『騎驢隨筆』, 128쪽 「李麟榮」.

92 「第二回 李麟榮問答調書」, 720, 731, 742쪽.

93 「第一回 李麟榮問答調書」, 720, 723쪽.

기본적으로 유교적 충애사상·반일의식·근왕의식·독립정신에 입각하여 일본군과 친일파를 물리치고 황실을 공고히 하고 한국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의병운동을 전개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간략한 창 의의와 목적 외에 이인영의 거의 목적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자료는 일제가 그의 취조문답을 요약한 「거병 主 旨 및 목적」이라는 구절과 1908년 3월 체포된 그의 참모장 金 燮이 취조 중에 공술한 기록이다.

일본은 청일전쟁의 종국에서 馬關條約으로써 한국의 독립을 맹약하고 이를 세계에 聲明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대를 해산하고 우리 황제로 하여금 강제 양위케 하는 등, 특히 우리 나라를 빼앗고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려 하였다. 이에 의병을 일으켜 그들을 이끌고 상경함으로써 統監과 詰談하려 하였다. 만일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비록 힘이 미치지 않더라도 결단코 먼저 일본인의 앞잡이가 되어 우리 나라를 망치려는 不忠不義의 역신 宋秉畯·李完用·朴齊純·任善準·權重顯·李址鎔 등을 살육하고, 우리가 신용하는 인물과 가능하면 나도 그 일원으로써 정부를 조직하여 일본인을 비롯한 모든 외국인을 구축하여 우리 나라의 독립을 보존하려는 것이 목적이다.⁹⁵⁾

同人(金燮)은 강개비분한 태도를 보이며 현금의 時態인즉 한국은 오직 名義 뿐으로 그 국가의 실권은 모두 일본에게 탈취당하기에 이른 것은 필경 五賊·七奸⁹⁶⁾의 處爲이라 하고 憤懣하면서 우리 의병은 彼等の 일파를 섬멸하고 국권을 회복한 후 의병 중에서 인물을 선임하여 정부를 조직할 企望이라고만 放言하여 自若하였다.⁹⁷⁾

94 「第一回 李麟榮問答調書」, 720-721쪽; 「第三回 李麟榮問答調書」, 737쪽.

95 金正明 編, 『韓國獨立運動 I: 民族主義運動篇』, 東京: 原書房, 1967, 37-38쪽.

96 이인영이 「問答調書」에서 누차 거론한 이른바 乙巳五賊과 丁未七奸은 망국조약의 체결을 주도한 이들로써 을사오적은 朴齊純·李址鎔·李完用·權重顯·李根澤 등이며, 정미칠간은 李完用·宋秉畯·李秉武·任善準·李載崑·高永喜·趙重應 등을 말한다.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이인영의 거의목적을 정리하면, 한국의 국권을 침탈한 일제 통감부를 공격하여 굴복시키고, 한일협약의 체결을 주도한 오적·칠간의 매국노를 처단하고, 망국적인 을사늑약과 정미조약을 파기하고, 그리고 의병장 가운데서 신망이 높은 인물을 선임하여 신정부를 조직함으로써 조선의 자주독립과 고종황제의 안녕을 천하에 선양하려는 것이었다.

서울로 압송되어 심문을 받을 적에 이인영은 강개한 언사를 유지하며 조금도 굴복하는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신의가 없음을 들어 일본인들을 준열하게 꾸짖어 마지않았다. 이에 감명받은 일본인들은 이인영을 ‘義士’라고 생각하여 아주 각별한 예우를 베풀었다.⁹⁸⁾ 당시 잠시 본국에 건너갔던 伊藤博文통감은 자신이 6월 하순에 도한할 때까지 이인영에 대한 처분을 보류하라는 특별명령을 하달할 정도로 그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⁹⁹⁾ 이러한 특별조치는 13도창의대진을 후원한 고종황제를 비롯한 중앙의 항일인사들을 색출하여 징계 내지 체포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심문조서 작성이 끝날 무렵 최후진술을 권하는 일본인들에게 이인영은 “나는 국가를 위하여 창의하여 忠君愛國의 정신은 물론 나의 誠意로 이를 받기시킨 것이다. 世事는 뜻대로 되지 않고, 또 親喪을 당하여 얼굴도 拜見치 못하고 忠孝 공히 죄인으로 天地에 몸둘 바가 없게 되었다. 이 이상은 죽을 수밖에 없다. 처분을 기다릴 뿐이다”라고 하였다.¹⁰⁰⁾ 이렇게 이인영은 끝까지 13도창의대장으로서의 의연함과 당당함을 잃지 않는 가운데 자신의 군센 독립정신과 충효정신을 분명히 밝혔다.

이인영은 1909년 8월 13일 경성 지방재판소에서 “내란 造意 및 지

97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10, 129쪽.

98 『騎鶴隨筆』, 129쪽, 「李麟榮」, 「義兵總大將 李麟榮氏 略史(續)」, 1909년 8월 1일.

99 『統監府文書』 9, 1999, 443쪽.

100 「第三回 李麟榮問答調書」, 742쪽.

휘범”의 혐의로 교살형을 언도받고 9월 21일 경성감옥(현 서대문형무소)의 교수대에서 43세의 나이로 의로운 생애를 마쳤다.¹⁰¹⁾ 임종 시에 그는 서양의 침략을 막아내려면 한일간의 평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동양평화론이 담긴 아래와 같은 의미심장한 한시를 남겼다. 밝고 밝은 해와 달이 中洲에 걸렸는데 / 온 세상의 바람과 물결이 넘쳐 흘러드네 / 도요새와 조개는 어찌 그리도 다투는가 / 西洲가 힘도 안들이고 그 둘을 잡아가겠네.¹⁰²⁾ 서양침략을 우려하며 동양평화를 힘주어 권고한 이러한 한시는 을사늑약~고종양위 전후기 이인영의 사상정향이 당시의 일반 유생들처럼 위정척사론을 벗어나 동도서기론으로 발전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인영의 생애와 사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동도서기론을 수용한 ‘혁신유림’으로서 고종황제와 대한제국을 위해 신명을 바쳐 의병운동에 종사하다가 분사한 항일의병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¹⁰³⁾

한편 형을 도와 13도창의대진소에서 활동했던 이인영의 동생 李殷榮(1868-1921)은 서울진공작전이 실패한 다음 형을 떠나 1909년 6월경까지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의병항전을 계속했다. 그는 1910년 이후에 의병계열의 비밀결사체인 民團組合의 충청도지부장으로 격문살포와 군자금모집 활동을 벌였고, 1913년 9월에 임병찬 등이 고종의 밀지를 받고 조직한 朝鮮獨立義軍府에 참여하여 일본의 내각총리대신 및 조선총독 등에게 조선독립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외국

101 대한민국정부에서는 1962년 3월 1일 이인영에게 건국공로 復章後章을 추서하였다.

102 「義兵總大將 李麟榮氏 略史(續)」, 1909년 8월 1일. “分明日月懸中州 四海風潮濫口流 蚌鵝緣何相持久 西洲應無漁人收”. 이인영의 거의동지인 이은찬이 지은 시에도 이와 유사한 동양평화론이 나온다. “一枝李樹作爲船 欲濟蒼生泊海邊 寸功未就身先溺 誰算東洋樂萬年”. 『獨立有功者功勳錄』 1, 840쪽.

103 이인영이 서거한 후 그의 가족은 일제의 혹독한 감시와 탄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이인영의 부인은 일제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며 아들들을 데리고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이주하였다.

공관에 격문을 전달하는 등의 항일활동을 벌이다가 1914년 4월경 피체되어 옥고를 치렀다.¹⁰⁴⁾

5. 맺음말

이인영은 단발령 후 여주에서 일어나 원주·제천 지역을 무대로 반개화·항일 의병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다가 제천의병이 장기럼의 관군에게 패한 후 가솔을 이끌고 10여 년간 문경 산중에 은거했다. 을사늑약~군대해산 전후 각지에서 항일의병이 봉기하던 시대상황에 자극받아 이인영도 거의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군사를 거느리고 찾아와 고종의 밀지를 내보이며 거의를 촉구한 이구채·이은찬의 권고를 받아들여 원주에서 거의의 깃발을 들었다. 이후 원주 일대에서 소모한 관동창의군과 경기·강원도에서 규합한 13도창의군을 거느리고 양주를 거쳐 서울로 진격하여 동대문밖 30리 지점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러한 이인영의 전·후기 의병운동에 나타난 특징 내지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인영은 한말 의병운동사상 최초의 전국적 연합의병 조직인 13도창의대진소의 대장으로서 역사적인 서울탈환 작전을 총지휘했다. 둘째, 이인영은 부친상 후 급히 귀향함으로써 군대해산 전후 각지에서 활동 중이던 유림의병장들의 유교중심적 사유구조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셋째, 이인영은 동도서기론을 수용한 개신유림으로서 고종황제와 대한제국을 위해 신명을 바쳐 의병항쟁을 전개했다. 넷째, 을미의병운동 당시 이인영의 원주의병은 원주경내에서 활동한 유일한 의병진이었다. 이러한 점등을 감안할 때 이

104 『高等警察要史』, 慶尙北道警察部, 1934, 178, 259, 260쪽; 『日帝侵略下 韓國三十六年史』 2, 國史編纂委員會, 300쪽.

인영이 양차에 걸쳐 전개한 의병활동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한말 의병운동사상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인영의 생애와 활동이 의병연구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은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보여진다. 첫째, 이인영 및 관동창의군·13도 창의대진소의 의병활동을 구명할 수 있는 창의록류의 문건들이 일제 강점기에 모두 일실 내지 소실됐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13도창의대진소의 연합의병이 서울탈환작전을 펼치고 있던 중차대한 시기에 이인영이 國事를 버리고 家事를 위하여 의병대장직을 허위에게 일임하고 귀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다른 의병자료와 달리 그의 「問答調書」에 유달리 많이 나오는 고종황제의 밀지문제나 고종황제 및 그 측근 인사들과 이인영과의 내용문제가 한말 의병운동의 순수성·자발성 및 이념성을 배타적으로 강조해온 한국학계의 의병연구 경향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여러 이유들로 말미암아 이인영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이제야 이루어진 점에 대해 참으로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1907년 전후에 유림계열의 대표적 의병장인 유인석·최익현·이석용 등도 여전히 衛國보다는 衛道를 보다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부친상을 이유로 하향한 이인영의 행위를 실력양성운동이나 외교청원활동보다는 무장군사활동을 중시한 1970년 이래의 독립운동사 연구경향에 입각하여 비판 내지 폄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듯하다. 오히려 부친상이 초래한 이인영의 부득이한 귀향에서 언뜻 엿보이는 다양한 의병세력간에 주도권을 둘러싼 대립관계나 노선차이 등을 깊이 파헤치는 것이 차라리 한말 의병운동의 운동 내적인 역동성을 구명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고종황제의 밀지문제나 이인영과 고종세력들과의 내용문제를 단순히 일제측이 고종황제와 그 주변의 항일세력들을 일망타진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날조한

것이라고 간주하여 일체 무시해버리는 것은 너무나 단선적인 역사해석이다. 오히려 한국사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인 장구하고도 강고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역사적 경험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는 고종황제의 밀지문제나 중앙세력과 지방세력간의 연대문제가 경기 일원, 나아가 전국 각지의 의병운동을 조직화·연합화·전국화·강렬화·장기화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한말 의병운동의 근왕적 특질을 구명하는데 관건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요컨대, 본고는 이인영의 전·후기 의병활동을 1차 사료에 근거하여 재구성하는 한편, 상기 두 가지 문제 가운데 후자의 문제에 대해 필자 나름의 愚見을 피력한 논문인 셈이다.